

초

점

기

회

4 제1차 北京 APEC 科學技術關係會議의 主要議題와 向後課題

목 차

- I. 關係會議의 背景
- II. 主要의제
- III. IST Action Program
- IV. 各료회의 Joint Communique
- V. 의의 및 향후과제

李明振

대외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I. 關係會議의 背景

제1차 APEC 과학기술각료 회의가 지난 10월 5~6일 중국 의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공식명칭은 '域內 과학기술협력력을 위한 각료회담(APEC Ministers'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이었다. 이번 회의의 출발은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지난 '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각료회의의 개최를 제안하고 이 제안이 정상들간에 합의된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세차례의 실무그룹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회의내용이 마련되어 본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파푸아 뉴기니 불참)대표가 참여하였고 '89년 APEC의 창립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외무/통상각료를 중심으로 하는 APEC 각료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최근 재무, 환경, 정보통신,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등 정책분야별로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APEC 비공식 각료회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초 외무/통상장관 중심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각료회의에서 출발하여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분야별 각료회의가 생겨나는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분화 및 확산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APEC내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GIST)이 주관한 준비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배경으로 하는 회원국의 각료가 한자리에 모여 역내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각료회의의 개최라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뿐 실질적인 성과는 많지 않으리라는 일부 선진국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반면 산업/무역과 연계된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이나 개도국들은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각료회의가 지니는 상징적 효과와 더불어 향후 역내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의해 본 회의의 개최는 큰 문제없이 가능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총 28개 공동연구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역내 산업과학기술협력활동의 지침을 담은 실행프로그램초안(Draft Action Program on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이 승인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차기(제2차) 과학기술각료회의를 '96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제안을 본 회의에서 확정함으로써 과학기술외교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II. 주요의제

본 회의는 각국대표의 연설, 역내 협력방안 협의, IST Action Program 승인, 장관회의 Communique 채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역내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에서는 정보 및 기술이전 증진(호주, 미국 발제),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뉴질랜드 발제), 과학기술 관련 규제제도의 투명화, 지역공동연구의 촉진(호주, 일본, 한국 발제) 등 4개 주제를 대상으로 1~3개 회원국이 발제연설을 하고 전회원국이 그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상기한 4개 주제는 사실상 IST Action Program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료회의에서는 Action Program의 내용에 부분적인 comment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음에서는 3차례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에서 준비한 IST Action Program과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Joint Communique의 내용을 살펴본다.

III. IST Action Program

1. 준비과정

1994년 각국 정상들은 보고르선언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APEC 하부기관에 지시하였으며 IST 실무그룹은 일본과 호주가 주관하여 IST Action Program의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8차 IST 실무회의(Wellington, NZ, '95.3)에서 시작된 Action Program 준비작업은 Vancouver IST 비공식회의('95.5), 9차 IST 실무회의(Mexico City, Mexico,

'95.9), 과학기술 고위실무회의(Beijing, China, '95.10)를 통하여 수정/보완작업을 거쳤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 초안이 승인되었다. 승인된 초안은 기타 실무그룹과 전문분야별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각기 마련한 13개의 분야별 Action Program과 함께 Action Agenda에 부속서로 첨부되어 '95.11 오사카에서 개최된 7차 APEC 각료회담과 3차 APEC 정상회담에 상정되었다.

2. 내용

IST Action Program은 APEC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내 과학기술협력의 우선분야를 지정하고 공동활동 및 정책대화에서는 기간을 명시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도 일부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현재 산업과학기술 실무회의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술정보/기술의 교류증진 부문에서 일본이 추진하는 정보네트워크 등의 메카니즘 연구,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인식(public awareness)의 함양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산업과학기술지표 부문에서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과학기술지표 작성사업 등이 그 예이다.

1) 서문

- 아태지역의 경제규모, 무역량비중 등 동지역의 중요성
- 지속적인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위하여 역내 투자확대와 함께 산업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증진 필요성

2) 공동정책개념(Common Policy Concept)

① Vision: 산업과학기술의 개발및 적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아태지역의 건설

② 목표: 2020년까지 역내 산업과학기술정책과 프로그램은 다음 목표를 달성

- 경제성장, 무역및 투자기회의 증진
- 보다 나은 삶의 질, 깨끗한 환경
- 역내 회원국의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잡힌 산업구조
- 경제활동, 특히 민간부문의 성장, 기술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과학적 지식의 향상
- 정보/기술의 원활한 유통 및 적용
- 산업표준 등 주요분야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
- 산업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공동참여하는 정부, 민간(중소기업 포함), 교육기관의 연계 강화
- 산업과학기술 공동과제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지원

③ 산업과학기술의 효율적 협력을 위한 비구속적(non-binding) 원칙: 회원국의 규모, 경제발전, 기술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산업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은 다음 원칙을 준수

- 공동활동 및 교류는 Action Program의 vision과 목표를 지향
- 역내 다자간 연구협력활동에 모든 회원국의 참여기회 보장
- 회원국의 능력에 비례한 협력에의 기여, 수

혜의 공정성

-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
간의 협조 장려
- 공동활동에 있어서 가능한한 중소기업의 참
여 보장
- 공동활동은 기초연구에서 경쟁전 산업R&D
까지 기술혁신의 전주기를 포함
- 기술교류증진을 위하여 표준 및 표준설정활
동에 일관/투명한 접근
- 공동활동은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결과물의
공정배분

④ 우선분야: IST 실무그룹은 Action Pro-
gram의 공동정책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분
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

- 기술정보 및 기술의 교류증진
- 산업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교류 및 인적자원
개발 증진
- 공동연구의 촉진
- 규제제도의 투명성 증진
-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
- 정책대화 및 검토 확대

3) 공동활동(Joint Activities)

① 기술정보 및 기술의 교류증진

- 연구소를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 강화 등 기
술정보접근 촉진을 위한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를 '97년 중반까지 완료
- '96년 중 공동사업활동(joint business
activities)기회와 생산 know-how 개발확
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가능성 모색
-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함양을 위하여
환경기술을 포함한 산업과학기술분야의 정
보공유를 위한 workshop, symposium 개

최를 환영

- 민간부문의 기술정보/know-how 교류증진
을 위하여 Technomart의 정례적 개최를
환영

- 과학기술자료회의에서 제안된 정보/과학기술
교류증진을 위한 과제개념의 실행고려

② 연구자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증진

- 각회원국 연구자교환제도의 개선 및 신설
- 노동효율성/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술자
(engineer) 훈련, 전문가교류 증진에 노력
- 산업과학기술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증진을 위
한 APEC의 이니셔티브(필리핀이 제안한
중소기업 기술교환 및 훈련센터)에 협조
- 과학기술자료회의에서 제안된 연구자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증진을 위한 과제개념의 실
행고려

③ 산업과학기술의 공동연구과제 진흥

- 제10차 IST 실무회의부터 시작하여 역내의
경쟁전 산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촉진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여 '96년내 완료토록
노력

- 지침마련과 병행하여, 실무회의는 산업과학
기술공동연구의 초기 우선대상분야를 선정
과학기술자료회의에서 제안된, 재난방지 및 환
경을 포함한 공동연구과제개념의 실행고려

4) 회원국 정책/활동에 관한 대화(Dialogue on Member Economies' Policies/Activities)

- 각회원국 산업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의견교
환, 정보/경험공유, 협의를 목적으로 산업과학
기술지표개발, 관련 규제검토 등의 대화를 수행

① 산업과학기술지표

- 실무회의는 역내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효율적/효과적 협력을 위하여 연구소 수, 산업별 연구개발지출 등 산업과학기술과 관련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지표/통계의 작성을 목표

◦실무회의가 결정하는 분야의 지표/통계를 개발

② 규제제도의 투명성

◦실무회의는 산업표준제도 및 측정법규와 관련하여 표준 및 조화 소위원회 (Standards and Conformance Subcommittee)와 협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제도, 특정법규, 지적재산권 등 산업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정기적 검토를 실시

3. 쟁점사항

공동정책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비전, 목표, 비구속적 원칙과 관련하여 준비 실무그룹 회의에서 중국 등 일부 개도국은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본문에 삽입하고 이의 중요성을 명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장시간의 舌戰을 전개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경각료회의에서는 당사국 모두 민감한 사항을 피하여 발언하는 등 자제하는 노력이 역력한 가운데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기술 관련 교역/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 결과물의 공정분배를 명기하는데 합의하였다. 공동활동과 정책대화에서 제시된 5개분야의 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미국 등이 제

안한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분야를 참가하지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보고르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위실무회의 (SOM)의 권고에 따라 Action Program의 준비작업을 주도한 일본과 호주는 본문 중에 5개분야의 실행기한을 명기하고자 하였으나 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 등 각국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분야에만 기한을 적용하는데 그쳤다.

IV. 각료회의의 Joint Communiqué

캐나다가 초안한 Communiqué에는 APEC 회원국 과학기술각료들이 IST Action Program에서 제시한 역내 과학기술협력의 목표, 원칙, 우선분야, 실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회원국이 제안한 28개 공동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제 2차 과학기술각료회담을 '96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Communiqué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IST Action Program의 내용 중 '산업과학기술'로 표현된 부분을 '과학기술'로 변경하여 표기하였다.

28개 연구과제는 환경, 재난방지 등 공동연구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교류, 인적자원개발, 규제제도 분야는 각각 1~5개가 제안되었다(〈표 1〉 참조).

한편 각료들은 제안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공동연구추진 mechanism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 및 재난방지연구, 정보/기술교류, 인적자원개발 관련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표 1〉 공동연구 제안과제 목록

01. APEC Centers of Excellence (Australia)
02. APEC Council of Academies of Applied Sciences and Engineering (Australia)
03. APEC Environmental Management Network (Australia)
04. APEC Clean Coal Technology Information (China)
05.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and Protection on Wild Medicinal Resources (China)
06. Evaluation Study of S&T Programs (China)
07. Forewarning System on Crop Yield in APEC (China)
08. Important Scientific Research Project: Tau-Charm factory (China)
09. Large Sky Area Multi-Object fibre Spectroscopic Telescope (China)
10. Population Dynamic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Major Crop Pests (China)
11. Acid Rain Monitoring Network (Japan)
12. Collaborative Research on Disaster Prevention (Japan)
13. Facilitation of S&T Information Flow (Japan, Korea)
14. Mutual Utilization of Research Facilities (Japan)
15. Public Awareness Activities for S&T (Japan)
16. Research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Exchange (Japan)
17. Research on Industrial Measurement System (Japan)
18. Virtual Center for APEC Environmental Issues (Japan)
19. APEC Joint Research on Biodiversity (Korea)
20. APEC Joint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 (Korea)
21. Research Manpower Training Program (post-doc) (Korea)
22. APEC Coordinating Center for Good Clinical Practice (Singapore)
23. Establishing S&T Policy Research Center (Chinese Taipei)
24. Feasibility Study for APEC Center for Technology Foresight (Thailand)
25. Addressing the Challenge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USA)
26. APEC 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 (USA)
27. Earthquake Loss Estimation Methodology (USA)
28. Symposium on Manufacturing Networks for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SA)

주: ()안은 제안국가임.

V. 의의 및 향후과제

1. 北京會議의 意義

북경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각료회의 의제의 실제, 즉 18개국 과학기술각료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제(substantial agenda)가 있는가, 그리고 동 각료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북경회의가 개최되었다. '96년 2차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경회의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의미 이외에도 서울회의가 갖추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주게 된다. 먼저 요약하자면 이번 북경회의는 APEC 機構化가 진행되는 과정의 한 측면으로, APEC 양대 주제의 하나인 역내개발 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로, 그리고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APEC내 과학기술협력을 각료회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첫째, 북경회의는 APEC이라는 국제기구의 기구화(institutionalization)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分化/擴散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89년 비공식 정부간 협의체(informal inter-governmental process)를 주창하면서 설립된 APEC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PEC 정상회담은 그 개최지가 '98년까지 확정되었고, 전문분야별 APEC 비공식 각료회의가 수시로 개최되는 등 APEC의 기구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APEC 초기부터 말레이시아의 Mahathir Mohamad 수상은 APEC의 기구화가 필연적으로 ASEAN의 결속력을 약화시킬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SEAN 회원국은 APEC이 合議體(negotiating forum)이 아닌 協議體(consultative forum)로 존재하는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많은 회원국은 APEC의 급속한 조직화에 반대하는 가운데 APEC의 C를 'cooperation'에서 'community'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MM), 고위실무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실무그룹(Working Group; WG)의 단순조직에서 출발한 APEC은 그 후 싱가포르에 사무국(APEC Secretariat)이 설치되고, 예산위원회(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BA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가 추가되었으며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통관절차 소위원회, 표준 및 조화 소위원회 등이 설립되는 등 그 조직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9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아·태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그 정례화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94 인도네시아, '95 일본에 이어 필리핀('96), 캐나다('97), 말레이시아('98)까지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정례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APEC의 최상위 기구로서 APEC의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서 '94.3 APEC 재무각료회의를 시작으로 통상, 환경, 정보/통신, 중소기업, 교통,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별 각료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거나 개최예정인 있는데 이는 최근 역내 회원국간에 급증하고 있는 각 전문분야의 협력수요를 외부/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APEC 공식기구가 감당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북경회의는 역내 과학기술 전문분야 협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APEC 기구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번 북경회의는 역내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개발협력을 兩大 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APEC내 기구의 편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에 관한 논의는 불균형적으로 前者에 치우친 채 진전되고 있다. 즉 '93년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설립되고 '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하여 무역/투자 자유화의 기본일정이 제시되는 등 무역/투자 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으나 역내 개발협력에 관한 논의는 '95년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의 3차 보고서에 이르러서야 본

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역내개발협력의 메카니즘으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Partners for Progress (PFPP) Unit은 순수과학기술보다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역내개발협력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북경과학기술각료회의는 APEC이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역내 개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APEC이 과학기술협력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APEC 회원국들의 과학기술력 및 지정학적 구도상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의의 전략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이번 회의는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APEC내 과학기술협력활동의 무대를 각료급회의로 격상시켜 역내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동연구노력의 실질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할 수 있다. APEC 상부구조에서부터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무역/투자 자유화와는 달리, 과학기술협력활동은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10개의 실무그룹 중 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기술, 에너지, 해양자원보존, 통신, 수산, 교통 등 관련 분야에서 과학기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실무그룹은 특정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화하여 실무그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WGIST)만이 역내 회원국의 산업과학기술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

술/정보 교류, 연구자 교류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의 투명성 확보, 공동연구증진 등 과학기술협력의 전반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APEC내 과학기술협력에 관련된 의제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그룹의 공동연구과제 형태로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실행 또한 활발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북경회의는 9차례에 걸쳐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3배 수준인 28개 공동연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북경회의에 참여한 각료들은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역내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메카니즘 개발을 논의하여 차기 과학기술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역내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논의를 실무그룹 수준에서 각료회의로 격상시켜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공동과제의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2. 向後課題

'96년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PEC내 과학기술협력활동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방향정립이다. APEC내 개발협력에 관한 회원국간의 기본입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북경회의는 일단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가 역내협력의 기본틀을 구축하기까지는 거시적 목표 및 구체적 방안에 관한 선진국/개도국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풍부한 자금을 바

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실질적이고 부분적인 협력만을 추구하는 미국,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우리나라의 역내 개발협력에 관한 전략적인 입장의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APEC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단기적/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인 것이다.

둘째, APEC내에서 한국의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작업이다. 특히 APEC 회원국들이 지니는 경제적, 문화적 異質性을 수용하여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PEC전체에 대한 多者的(multi-lateral)인 접근과 개별회원국 또는 회원국群과의 兩者的(bi-lateral)접근이 동시에 전개되어

야 한다. 특히 공식적인 협조관계의 유지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류와 저변구축노력이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내년의 제2차 과학기술각료회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북경회담이 우선 원론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한다면 서울회담은 내실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료, 전문가가 APEC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방향을 파악하고 회원국들의 利害와 기대를 분석하며 APEC 회의관행이나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훈련/양성이 요청됨은 물론이다.